

## “정치 배제, 시민이 주인 되는 행사 됐으면”



### ■ 5·18 슬로건 공모 최우수상 수상 이준엽씨

공모대회에서 ‘참여해요 5·18, 함께해요 6·10’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엽(31·대구시 중구 삼덕동)씨.

자동차 판매사원인 이씨는 “기대 이상의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5·18’과 ‘6·10’ 민중항쟁” 때처럼 시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최근 ‘5·18’과 ‘6·10’ 민중항쟁 기념행사 슬로건에 공모한 것은 이를 행사가 시민들이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곧바로 5·18 행사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하고 함께 하자는 뜻의 슬로건을 만들어 공모했다.

“흔히 대부분의 기념행사가 정치인들의 사과와 논쟁의 장이 되곤 하는데, 올해 행사부터는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 되지 않고, ‘시민의·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행사로 치러졌으면 합니다.”

그는 또 5월 관련 단체 등이 시민들과 5·18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人们对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월 정신’을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상금으로 받은 50만원을 여행비에 보태 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5·18 27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5·18 민중항쟁’을 몸소 체험할 계획이다.

한편, 총 246명이 참가한 이번 슬로건 공모대회에서는 2등(아이디어 상) 수상작은 나오지 않았고, 3등(아차상)은 이재형(48)씨의 ‘5월의 빛 드넓게 민주의 빛 드넓게’와 조일근(17)군의 ‘뜻 모아 5·18, 힘 모아 통일로’가 각각 차지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서정욱 전장관〉 〈찬 시룬 장관〉

서정욱 前장관·찬 시룬 장관

### 전남대서 명예박사 학위

전남대학교는 서정욱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찬 시룬(Chan Sarun) 캄보디아 농림부 장관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서 전 장관은 50년 이상 과학기술계에 몸 담으며 과학기술 정책개발을 통한 경제발전과 신 에너지 개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학위를 받는다.

2000년에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알런 맥아더미드 교수와 전남대의 연계를 지원해 전남대 나노에너지 재료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연구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25일 오후, 찬 시룬 장관은 26일 오전 학위를 받는다.



이희호 여사가 24일 오전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언 동신대 총장으로부터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장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이희호 여사, 동신대서 명예박사 학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24일 동신대에서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신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학 내 국제회의장에서 ‘이희호 여사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갖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 여사의 희생정신과 송고한 마음을 기리기 위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이미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는 동신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듭있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학위 수여식 뒤 이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과 봉사와 나눔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여사는 강연에서 “우리 주위에는 가난과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광주 대표적 낙후지 풍향동 일대 최고의 주거지로 거듭나게 될 것”

### ■ 김오금 풍향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광주의 대표적 구도심 낙후지역이던 풍향동 일대를 광주 최고의 친환경 주거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들의 화합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광주 북구 풍향동에 ‘주택재개발 흥보관’을 개설하고 풍향구역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추진중인 김오금(74) 풍향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은 24일 “재개발 사업은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추진위원, 시행사 등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60%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라며 “을 상반기 내로 지정작업을 마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면 오는 2009년에는 풍향동 일대가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5만513평(16만6천986㎡)의 대지에 총 3천3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며, 구도심인 풍향동 인근의 주변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김태일 한국기술원장 ‘2007 기술상’ 수상

김태일 한국기술원장이 ‘대한금속재료학회 2007년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금속재료학회는 “김태일 원장의 화합물 반도체 광소자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뤄낸 공적을 인정해 ‘제30회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미국 ‘POO’사와 삼성종합기술원 재직시 국내 최초로 적색레이저 및 청색 LED를 개발, 상품화 광소자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2002년에는 10Gbps EML 및 10Gbps APD를 개발하여 ‘장영실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9월 광주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신학회) 2006 조직위원장’으로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김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몽블랑 예술후원자상’ 한국 수상자에

###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선정



독일 몽블랑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6회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의 한국 수상자로 일신방직 김영호(63) 회장이 24일 선정됐다.

몽블랑의 한국 내 유통사인 유로통상(회장 신용근)은 “김영호 회장이 일신문화재단을 통해 국내 클래식 음악계와 언론계, 문화유산보전활동, 광주비엔날레, 대한민국건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세계 10개국에서 문화예술활동 후원가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순금으로 현장 생산하는 그 해의 몽블랑 예술 후원자 펜과 1만5천 유로의 문화후원금을 부상으로 수여

한다. 문화후원금은 수상자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인물에게 기부하게 된다. 김영호 회장은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46) 씨를 후원금 수혜자로 지명했다.

###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회장

### ‘남도의 문화를…’ 주제 강연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회장은 25일 상무지구 센트럴 관광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가 주최하는 무역상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남도문화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 아시아나, 김연아와 공식 후원계약 체결

아시아나항공(대표 강주안·오른쪽 두 번째)은 24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 본사에서 이날 아시아나항공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연아 선수(가운데)와 공식 후원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후원에 나섰다.

이번 계약으로 김 선수와 김 선수의 부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향후 1년간 전 노선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건보 광주동부지사 ‘노인요양 지원센터’ 현판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지사장 김백수)는 24일 이병식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과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유정심 광주 남구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지역 주민 대상 ‘제3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제공〉

## 생활 게시판



### 백지연 방송 복귀, 손석희와 맞대결

#### SBS 시사프로그램 맡아

방송인 백지연(43)이 30일부터 SBS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전망대’ 진행을 맡아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백지연은 “올해 정말 많은 뉴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부담이 느껴진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나 생각한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방송 밖에서 자연인으로 방송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담아 달라진 시각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지연은 같은 시간대 방송되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경쟁을 벌치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문운리위원회 이사장)씨 잠남 승진 군 이상기씨 장녀 해진영=27일 (금) 낮 12시30분 연세대 동문회관.

▲안상업(송전문대 교수)씨 장남 치용(조선대 내과 전공)군 하상호(조선대 교수)씨 장녀 재화(조선대 내과전공)=28일(토) 낮 12시 광주양립교회.

▲임우순(세무사)씨 막내 형주군 김재봉씨 막내 일경양=28일(토)

낮 12시30분 신양파크호텔 그랜드 불룸.

▲정성규(형제철물상사 대표)씨

장남 인갑(기아자동차)군 정길태

(가평여행사 대표)씨 차녀 효선양=

28일(토) 오전 11시30분 오페라하우스 우스 3층 그랜드홀.

▲오정록씨 장남 명훈군 박형우

(혜성건설 부사장)씨 장녀 윤하양=

29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대성(제주일보 회장·한국신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자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치료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상담 전국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

▲시종초교 제 29회 동창회(회장 박만우) 정기총회=29일(일) 오전 11시 일송정회관. 525-9977

▲담양 창평북초교 29회 동창회 모임=5월2일(수) 오후 7시 보건대 안경점. 010-7277-2232

▲시종초교 제 29회 동창회(회장 박만우) 정기총회=26일(목) 오후 6시30분 상록회관 4층 연회장.

▲제2회 광주여성의 전화 18기 상담 학교 참가자 모집=30일까지 접수. 자원 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선착

순 30명. 문의 363-0485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